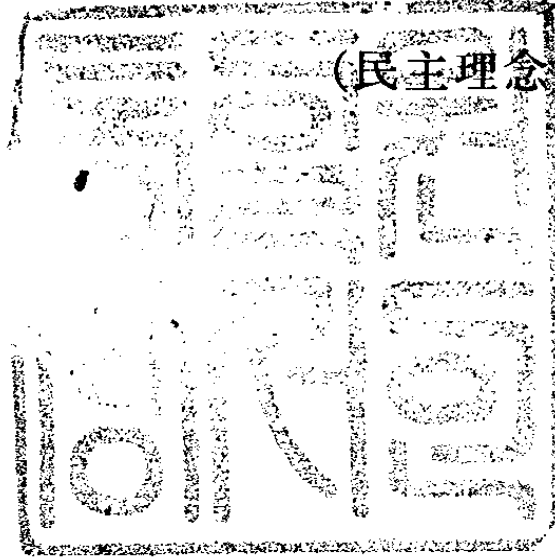


北韓政權의 對南戰略에서 나타나는 民族的 動機

— 金日成의 民族主義 分析과 批判 —

安 正 秀

(民主理念研究所 所長, 教博)



통일연수원

차 례

1. 序 言	3
2. 北韓에서 言表되는 民族主義 - 결과 속	5
3. 金日成의 民族主義 - 그 正體	11
가. 主體의 民族理論	13
나. 中心用語의 概念分析	18
다. 金日成의 民族主義	26
4. 北韓政權이 民族的 動機를 強調하는 背景 ...	33
5. 北韓政權의 民族的 動機의 強調가 南韓에서 얻는 效果	38
가. 言語戰術的 效果	38
나. 政治教育的 效果	39
다. 直接的인 政治的 效果	39

1. 序 言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북한정권의 對南戰略에 있어서 민족적 동기가 강조되고 있다. ‘민족해방’이라든가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한 조국통일’이란 것을 그 規約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그 首領으로서는 그 정책목표의 추구라는 차원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에서도 民族的 動機를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나, 근래의 樣相을 보면 유다른 점이 발견된다.

1991년 8월 1일 金日成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을 상대로 한 談話¹⁾에서 “계급, 계층의 사상과 리념을 옹호하고 리익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의 위업”이며,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民族的인

1)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이 담화의 全文은 「노동신문」 1991년 8월 5일자에 실려 있음.

것이 階級的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칭하였다. ‘공산주의자’요 ‘국제주의자’라는 表明에 더하여 ‘민족주의자’라는 것이 하나 더 첨가된 것이다. 「조선노동당」의 首領이 자신에 대해 ‘민족주의자’라는 言表를 가한 것이다.

공산주의 신봉자가 자신을 ‘국제주의자’로 호칭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그 이데올로기의 본질상 당연한 일에 속하지만, ‘民族主義者’라는 호칭은 전혀 뜻밖의 것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政治史에 있어 그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상에서 부정되어 온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7년 전(1986년 7월 15일)만 해도 그의 후계자 金正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談話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우리민족 제일주의’라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던 것이다.

金日成은 과연 자기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변신시

킨 것일까. 金日成父子는 참으로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 ‘계급적 이익’을 그에 종속시키고 있는가. 조선노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의 ‘階級路線’을 포기한 것일까. 북한의 指導部에서 나오고 있는 민족적 동기의 言表, 그것을 우리는 어떤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2. 北韓에서 言表되는 民族主義 — 결과 속

조선노동당 首領이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1991년 8월의 突發事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의 言論媒體들에 의해 부연과 조탁이 가해지고 있다. 1992년 5월 13일의 평양방송은 “위대한 수령께서 밝히신 진정한 민족주의에 관한 사상”을 論說의 주제로 삼고, 북한의 통일정책은 金日成의 ‘민족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論旨를 폈다. 여기서 ‘진정한 민족주의’란 표현은 이른바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對抗概念으로 상정한 것이다.

킨 것일까. 金日成父子는 참으로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 ‘계급적 이익’을 그에 종속시키고 있는가. 조선노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의 ‘階級路線’을 포기한 것일까. 북한의 指導部에서 나오고 있는 민족적 동기의 言表, 그것을 우리는 어떤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2. 北韓에서 言表되는 民族主義 — 결과 속

조선노동당 首領이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1991년 8월의 突發事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의 言論媒體들에 의해 부연과 조탁이 가해지고 있다. 1992년 5월 13일의 평양방송은 “위대한 수령께서 밝히신 진정한 민족주의에 관한 사상”을 論說의 주제로 삼고, 북한의 통일정책은 金日成의 ‘민족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論旨를 폈다. 여기서 ‘진정한 민족주의’란 표현은 이른바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對抗概念으로 상정한 것이다.

신문의 논설도 예외가 아니다. 1992년 6월 26일자 노동신문의 論說을 보면,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누구나 민족의 공통성을 첫자리에 놓고 조국애와 민족사적 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할 것”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민족의 공통성의 우선, 祖國愛, 민족사적 정신과 같은 것은 民族主義의 내용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 外交政策的인 면과 관련해서도 민족적 동기가 반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事例들도 눈에 띈다. “력사적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논평기사²⁾를 통해 日本에 대해 ‘과거청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예에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民族主義라는 것이 언어로서 표현되고 정서적인 분위기로서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의 정권이 階級主義 路線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니, 階級意識은 더욱 고취되고 있고 노동계급적 관점은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 예를

2) 「노동신문」, 1992년 10월 22일자.

들면, 金日成이 ‘민족주의자’를 自稱했던 그 달의 하순, 그의 권력상속자 金正日은 첫 청년절을 맞은 청년들과 「사로청」 일꾼들에게 보낸 書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높은 계급의식과 확고한 로동계급적 관점은 혁명가의 기본품성의 하나입니다. 계급의식이 높지 못하고 로동계급적 관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모든 사회현상을 로동계급적 관점과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보고 판단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착취제도의 반동적 본질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³⁾

‘階級意識’을 고취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勞動階級的 觀點’의 제고와 ‘社會主義的 原則’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의식이 높지 못하고 로동계급적 관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울 수 없는”

3)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노동신문」, 1991년 8월 27일자 참조.

것이니, 靑年들은 모든 사회현상을 “로동계급적 관점과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金正日은 일찍이 계급사회에서 초계급적인 사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기본은 階級意識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계급사회에서 계급밖에 서 있는 사람, 계급을 초월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초계급적인 사상도 있을 수 없으며, 계급의식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기본으로, 핵으로 된다.”고 하였다.⁴⁾ 그것은 사상의식에서 ‘기본’이요, ‘핵’이라는 것이다.

‘기본’이자 ‘핵’이 포기될 수 있을까. 포기는 커녕 지금 북한에선 그것이 더욱 強調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의 論調는 이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도 사회주의의 원칙과 계급투쟁의 진리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당의 립장”이라고 강조되고 있다.⁵⁾ ‘계급투쟁의 진리’는 절대로 달라질

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권, p.458.

5) 「노동신문」, 1992년 11월 7일자 논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階級路線을 강화하면서 民族主義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昨今の 현실이다. 이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곡절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분명해지는 사실은 북한정권의 民族主義가 우리가 개념하는 바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階級主義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북한 통치자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를 동시에 고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계급적 사상감정”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이다.⁶⁾ 예의 金正日 書翰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빛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우

6) 최성욱,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조선노동당출판사, 1966), pp.28-29.

리 당이 빛내여 나가는 영광스러운 조국이며 우리 인민의 삶의 요람입니다. 사회주의 조국의 품속에서 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으며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조국에 바친 값높은 생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귀중함을 깊이 체득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의 룡성 번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란 공산주의자들이 愛國心을 강조할 때 쓰는 용어이다. 이것은 “철저한 계급적 성격을 띤 애국적 감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로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상감정이며 온갖 계급적 원수들을 증오하는 감정이며 자기의 계급적 동맹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상감정”으로 설명되는 것이다.⁷⁾ 자기민족의 일부를 敵對階級으로 전제하고 그를 “원수”로 증오하며, 그보다는 국제적으로 계급적 동맹자들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상감정이다. 본래 애국심은 이와 같

7) 같은 책, p.31.

은 敵對主義를 반대하는 것이요, 民族意識은 階級意識을 극복하는 것이다. 적대주의와 계급의식, 그리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같은 것은 民族 내지 民族國家 이념과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이르러 우리는 북한의 통치자가 民族主義라는 것을 言語로서 표방하고 있으나 裏面의 현실은 변함없이 ‘계급주의’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며 혹은 ‘프롤레타리아 애국주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 支配者가 ‘민족적인 것’을 내세우는 데는 필시 곡절이 있으리라. 그가 주장하는 民族主義라는 것의 正體는 무엇이며, 계급적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내세우는 까닭은 무엇일까.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3. 金日成의 民族主義 — 그 正體

金日成의 이른바 民族主義는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定義되는 것이다. 계급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포기가 전제되지 아니한 입장에

은 敵對主義를 반대하는 것이요, 民族意識은 階級意識을 극복하는 것이다. 적대주의와 계급의식, 그리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같은 것은 民族 내지 民族國家 이념과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이르러 우리는 북한의 통치자가 民族主義라는 것을 言語로서 표방하고 있으나 裏面의 현실은 변함없이 ‘계급주의’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며 혹은 ‘프롤레타리아 애국주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 支配者가 ‘민족적인 것’을 내세우는 데는 필시 곡절이 있으리라. 그가 주장하는 民族主義라는 것의 正體는 무엇이며, 계급적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내세우는 까닭은 무엇일까.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3. 金日成의 民族主義 — 그 正體

金日成의 이른바 民族主義는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定義되는 것이다. 계급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포기가 전제되지 아니한 입장에

서 이같은 ‘민족’, ‘자주성’ 등의 言說들은 대체 어떤 개념의 것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두 단계의 절차가 요구된다. 먼저 김일성의 民族理論, 곧 ‘주체의 민족이론’이라는 것을 살피는 일이다. 김일성式 ‘民族主義’의 이론적 근거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족과 그 有關 언어들의 개념을 분석하는 일이다. 언어는 하나의 記號體系이다.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상, 감정, 의지가 같은 것은 아니다. 그 언어의 개념,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이 다르면 기호는 동일해도 指示對象은 정반대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金日成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서 그가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와는 對立되는 것이고 이의 극복을 기도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가 ‘민족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서 그가 우리가 이해하는 ‘民族主義’를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김일성, 또는 북한정권은 ‘민족’에 대한 定義를 어떻게 내리고, 그 관련 언어들을 어떤 概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가. 主體의 民族理論

金日成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민족’이란 것은 무엇일 뜻하는가. 이것은 그의 言說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미루어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論究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제2권에 들어 있는 “사회적집단, 계급과 민족”⁸⁾을 일차자료로 삼고 살펴보기로 한다. 계급과 민족에 대한 金日成의 言說과 그의 意中을 십분 헤아리는 사람에 의한 체계적 解說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이런 것을 ‘주체의 민족이론’이라 칭하기도 한다. 김일성의 主體思想에 입각한 민족이론이라는 뜻이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이 계급과 민족에 대해 밝힌 리론”이라 하면 좀더 분명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이것은 “특히 민족해방운동을 승리의 궤도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데” 이론적 基礎가 되고 있다고 한다.

‘主體의 民族理論’은 북한에서만 아니라 남한의 지

8)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권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57-76.

식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널리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민족이론’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이들도 적잖다. 統一問題 또는 民族問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현시대 민족문제 해결의 새 처방”⁹⁾을 기대하며 이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주체의 민족이론’에서 ‘민족’의 개념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主體思想은 계급과 민족을 同列에 놓고 양자를 공히 ‘사회적 집단’이라는 의미로 파악한다. 階級은 현대사회의 사회적 구조에 있어 基本要素이고, 民族은 사회생활의 基本單位라고 한다.¹⁰⁾ 계급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존재하는 한 敵對되는 계급으로의 분열은 불가피하다든가, 계급관계가 모든 사회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것 등 마르크시즘(Marxism)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으나, 민족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조금 偏差가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民族理論에서 기본요소로서 중시되는 ‘경제생활의 공통성’은 ‘주체의 민족이론’에

9) 신상석, 「민족논쟁의 결산」 자료 편(서울: 일송정, 1989), p.89.

10)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58.

서는 삭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족은 씨족, 종족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해 오는 歴史的 過程에서 “피줄과 언어, 문화와 영토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된 공고한 사회적 집단으로 정의된다.¹¹⁾ 피줄과 언어, 문화와 영토의 공통성이 민족이라는 사회적 대집단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基本徵表라는 것이고, 이 중에서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이 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라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經濟生活의 공통성을 중심에 놓고 민족의 개념을 정립한 것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난다. 血統과 言語의 공통성이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시키는 데 있어 중핵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징표에 비해서 보다 지속성과 항구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체의 민족이론’은 또 하나 새로운 것을 내놓고 있다. 그것은 ‘자주성’이라는 것이다. 민족의 自主性이란 每個의 민족이 독자적인 生活共同體로 존재하고 발전하려는 속성을 말한다.¹²⁾ 구체적으로 이것은

11) 같은 책, p.17.

12) 같은 책, p.75.

자기의 영토와 혈통, 자기의 民族語와 문화를 가지고 이것을 고수하고 공고히 발전시키려는 데서 표현된다고 한다.

민족의 자주성은 내용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나는 獨自的인 생활의 공동체로 존재하며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權利를 옹호하고 행사하려는 志向性이요, 또 하나는 自主的인 사회집단으로 공고히 발전하며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責任을 다해 나가려는 志向性이다. 전자는 매개 민족이 밖으로부터의 그 어떤 압력이나 간섭, 지배와 예속을 허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자기의 요구를 主動的으로 내세우고 자기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는 데서 표현되는 것이요, 후자는 민족이 온갖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기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 나가며 자기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서 표현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金日成의 ‘민족’은 自主性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독자적인 생활공동체이자 자주적인 사회집단이 되는 셈이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첫째, 김일성에게 있어 ‘민족’은 생활공동체라든가 사회적 집단과 같은 사회학적 集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둘째, 이 개념은 매개 사회는 국가주권과 기본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고유한 계급구조를 가진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관점에 의해 統御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같은 認識構造속에 민족은 곧 ‘민중’이라는 思想이 배태되어 있고, 따라서 민족의 자주성이 곧 ‘민중의 자주성’¹³⁾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은 곧 “각계각층 민중의 민족적 차원에서의 단결”¹⁴⁾로 전개되는 것은 논리적 必然性이 되는 것이다. “민족은 본성에 있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주적 집단”¹⁵⁾과 같은 누구도 시비할 바가 아닌 듯한 -바로 우리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듯한- 命題들이 어떠한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13) 신상석, 앞의 책, p.101.

14) 같은 책, p.101.

15) 같은 책, p. 83.

나. 中心用語의 概念分析

북한 통치자가 民族的 動機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用語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들은 모두 위에서 살펴본 ‘주체의 민족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분석에 따른 평가적 이해를 위해서 對應理論의 개념이 요구되나 여기서는 관련 用語만 대비시켜 본다.

(※ 표 〈민족〉, 〈민족의식〉, 〈조국애〉 참조)

이렇게 보면 우선 우리가 누구나 그 意味를 알고 있다고 여기는 낱말들이 그 개념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常識과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다. 우리들의 언어공동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意味들은 전도되어 버린다. 김일성 그룹이 ‘民主主義’를 주장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三權分立과 代議原理를 지닌 憲政國家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모든 국가권력을 ‘인민’이 장악하고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國家權力을 ‘인민’이 보유하고 행사하는 통치 형식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듣던

〈 민 족 〉

	주 체 이 론	대 응 이 론
개 념	<p>사회의 공동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언어와 문화, 영토와 핏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된 자주성을 가진 공고한 사회적 집단</p>	<p>자기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의식하면서 자유롭게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어 고유한 가치— 이는 人類의 寶庫를 풍성케 함.— 를 실현해 나가려는 정치적 自我(‘우리’)意識을 지닌 인간의 집합체(이는 일차적으로 ‘이념’이요, 이차적으로 현실적인 공동체가 됨. 外來語로는 ‘네이션(nation)’)</p>
특 성	<p>자주성 : 민족이 자주적인 사회집단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려는 속성</p>	<p>민족의식 (아래 〈민족의식〉 참조)</p>
구 성 원	<p>인민대중(민중 : 자본주의사회의 경우 ‘피지배계급연합’과 일치)</p>	<p>국민</p>

〈민족의식〉

	주 체 이 론	대 응 이 론
개 념	<p>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민족이론에서는 ‘민족의식’이지만 민족해방운동론으로 넘어오면 그 실질적 의미는 ‘민중의식’이 됨.)</p>	<p>‘민족(네이션)’의 성원들이 그 통합된 전체와의 관계에 있어 지니는 心的·理念的 關係狀態로서, 그 現前樣式은 개별존재(구성원)의 일반존재(민족)와의 연관성이 거의 의식되지 않고 수용될 뿐인 상태(무의식적 상태), 감성적 체험에 입각해 있는 상태(민족감정), 理性과 意志에 의해 뒷받침되는 보다 반성적인 의식상태 등으로 多層的인임.</p>
의 식 내 용	<p>민족자주의식(민족의 자주성을 반영한 의식 : 누구에게도 얽매임이 없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떳떳하게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의 요구를 반영한 투철한 사상의식)</p>	<p>自我意識(자기보존의식, 고유성 및 고유가치의식, 자립의식) 連帶意識 精神的 親和性</p>

〈조 국 애〉

	주 체 이 론	대 응 이 론
개 념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살아오는,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진정한 조국은 단순히 나서 자란 나라나 고향일 뿐 아니라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 ‘위대한 수령이 마련해 준 인민의 나라’)	민족집단 성원들이 그들의 전체 定住空間을 고향으로 느끼고 사려하는 마음
본 질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 : ①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조국과 향토, 사회주의 제도, 자기인민에 대한 사랑과 충실성, ②사회주의 조국의 번영과 공산주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투지와 희생성, ③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혁명적 전취물과 그것을 창조한 인민에 대한 민족적 긍지와 사랑의 감정) ¹⁶⁾	하나의 큰 역사적이고 유기적인 집단이 그들의 祖上傳來의 자연적·정신적 生活空間을 고향으로 느끼고, 그 역사를 긍정하고 그 운명에 대해 책임의식을 지님.

16)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인민적 사상감정’, ‘계급적 사상감정’, ‘당적 사상감정’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한다. 최성욱, 앞의 책, pp.28-30.

중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민’이란 추상적인 개념은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 思考方式인지 알기란 쉽지 않다.

金日成의 政治思想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인민이 “자기의 손에 주권을 틀어 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권은 인민이 아니라 ‘人民의 前衛’인 당(조선노동당)의 손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다시 ‘당’이란 名詞가 쥐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령인 개인의 손이 “틀어 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게 된다는 것(언제까지 끊임없이 높여 나갈 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個人만 ‘완전한 해방’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 — 현실을 살아가는 인민(백성)들, 그들로 구성된 집단(계급, 계층 등)들, 이들 모두로 구성되는 민족이 해방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 이런 연관들을 파악하기란 용이치 않음이 사실이다.

북한정권은 ‘언어’를 政治的으로 이용한다. 특히

우리들이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 어휘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수법들이 구사되는데, 그 중에는 사회학적 정치학적 語彙들의 의미내용을 체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자주 쓰인다. 그것을 ‘再定義’ 수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민족’은 ‘인민대중’(자본주의사회에서 ‘피지배계급연합’)을 성원으로 하는 ‘집단’이요, 따라서 ‘민족’의 ‘대단결’(민족대단결)은 ‘피지배계급연합의 대단결’이 그 實質的 意味가 된다. 북한정권이 남한에 대해서 ‘민족의식’을 주장하면 그 실질적 의미는 ‘민중의식’이 되고, ‘민족자주의식’을 외치면 곧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이 된다. 이것은 그들에 의해 상정된 지배구조에 대한 抵抗概念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김일성과 남북한의 그 同調者들에게 있어 ‘民族’은 언필칭 “본성에 있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주적 집단”이다. 그리고 ‘民族問題’(‘통일’은 분단국에 있어서의 ‘민족문제’이다.)의 핵심은 ‘자주성의 문제’라고 한다. ‘自主性’이란 개념은 ‘민족해방’이란 개념의 성립을 가능케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민족해방’이라 하면 外勢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한편 ‘민중해방’이라 하면 우선 支配階級으로부터의 ‘해방’이 연상된다. 그러나 ‘민족’이란 것이 ‘민중’과 등치될 수 있는 社會的集團으로 개념될 경우 양자의 구별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¹⁷⁾ ‘민족해방’이 곧 ‘민중해방’에 다름 아니고, 그 逆도 마찬가지다. 흔히 북한정권의 남조선혁명이념이라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를 해석하여 북한정권과 남한의 그 동조자들은 먼저 “美帝를 축출하고 그 다음 파쇼세력을 타도”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은 일종의 形式論理에 머문 것이 된다.

민족적 열정의 소유자들을 誤導할 우려도 있다. 이를테면 ‘미제’(혹은 다른 외세)를 축출하는 線까지는 同調 내지 協力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實質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의 분석에서 분명해진다. ‘미제’(이른바 외세)를

17) 이같은 연관은 민족의 이익은 곧 민중의 이익이라는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본군중이며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력량이다. 민족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의 이익을 떠난 민족의 이익이란 있을 수 없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207.

축출하고 나서 ‘파쇼’(이른바 지배계급)를 타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이 이루어진 연후에 ‘민중해방’을 위한 실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해석은 左派革命이 ‘민족해방’만 성취하면 그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또는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김일성의 民族概念은 ‘민족해방’만 되면 ‘민중해방’은 연기(또는 유보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內包하는 것이 아니다. 兩者는 동시에 — 그리고 ‘함께’ (이 副詞는 실상 불필요한 말이나 설명의 구체성을 위해 추가함.) — 성취되는 것이거나 불성취(실패)되는 것이다. 동일한 現象의 다른 표현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민족해방에서 승리의 중요한 열쇠는 각계각층 민중의 통일 단결을 실현하는데 있다.”는 것은 金日成그룹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 이 문장에서 ‘민족해방’을 빼고 ‘민중해방’을 그 자리에 넣어도 의미의 차이는 하등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비교적 긴 命題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민족해방운동은 본질에 있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운동인 만큼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단결을 전제로 하고 전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대항할 것을 요구한다.”¹⁸⁾

自主, 平和, 그리고 民族大團結— 이 세 가지 추상 명사가 ‘통일의 3원칙’을 나타내는 언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言語를 북한 정권(그리고 남한의 그 동조세력)이 사용할 경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概念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이상에서 분석해 본 바, ‘주체의 민족’ 개념과 그 실천이론(‘민족해방운동이론’)에서 統御되고 있는 언어들이다.

다. 金日成의 民族主義

북한정권이 요즈음처럼 ‘조국애’를 高唱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말하는 祖國은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나라”, 곧 “위대한 수령이 마련해 준 인민의 나라”를

18) 신상석, 「민족논쟁의 결산」, p.99.

뜻한다. 북한에서는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조국’이다. 祖國愛란 이 “사회주의조국”, “위대한 수령이 마련해 준 인민의 나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뜻한다. 共產國家에서 인민들을 상대로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鑄造한 개념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북한에서는 결국 김일성이 인민에게 마련해 준 나라, 요컨대 金日成의 나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 이외의 다름이 아닌 것이다. 김일성도 사람인데 老年에 들어서서 故鄉意識, 祖國愛가 왜 없겠는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물을 이렇게 보는 것은 진실로부터 눈을 어둡게 한다. 우리들 인간이면 누구나 가치있게 여기는 言語와 表象들이 권력투쟁과 권력유지를 위해 동원될 수 있고, 이런 일에 능한 것이 左派全體主義者들이다.

일찍이 1950년대 초반에 김일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를 사랑함과 아울러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 고향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감정, 부모, 안해, 자식들에 대한

애정에서 표현되는”¹⁹⁾ 思想感情이라고 말이다. ‘조국’, ‘강토’, ‘역사’, ‘문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愛國心이요, 이것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 즉 ‘고향사람’, ‘부모’, ‘아내’, ‘자식들’에 대한 愛情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애국심이란 것을 이처럼 무난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가슴에 와 닿는 바마저 없지 않다.

그런데 이런 좋은 語彙들을 구사하던 그 무렵 그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기 祖國의 강토와 그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고 고향사람들과 그 부모, 아내, 자식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金日成이 ‘조국’의 남부(강토와 사람, 그리고 그 문화)까지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武力南侵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 동포들은 물론이려니와 그 와중과 휴전 직후 그는 무수한 고향사람들, 동지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처형하고 죽음의 收容所로 보냈던 것이다. 이런 행위가 모두 ‘조국해방’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언어 아래서 이루어졌었던 것을 우리는 想起하지 않을

19) 김일성, 「선집」, 제3권, 1954년 판, p.240.

수가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愛國心의 마르크스-레닌주의식 표현이다. 이 어휘로써 가장 많은 고향사람의 목숨을 앗아 간 사람이 스탈린(Stalin)이다. 그러나 작은 면적(舊소련의 100분지 1)의 강토에서 가장 오래 고향사람(동포)들의 목숨을 빼앗아 온 사람은 金日成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되었다. 김일성이 말하는 애국심, 곧 김일성式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는 대체 어떤 것인가. 그 특성을 들어보자.

첫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인민적 사상 감정이다.”²⁰⁾

사회주의적 애국심의 人民的 性格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민적 사상감정을 繼承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주인이 된 인민을 위해 服務하며, 전 인민이 갖는 사상감정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인민적 성격은 ①主權과 生産手段의 주인이 인민들 자신이며, ②사회주의 제도 자체가 인민의 福利增進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③인민들의 목적

20) 최성욱, 앞의 책, p.29.

과 이해관계가 같다는 데 基礎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계급적 사상 감정이다.”²¹⁾

이것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철저히 階級的 性格을 띤 애국적 감정이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애국주의’와 같은 것이다. 그 자체의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계급적 동맹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 감정과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당적 사상 감정이다.”²²⁾

黨的 思想感情이란 당(「조선노동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당을 열렬히 사랑하는 감정이며, 당의 의도와 배치되는 온갖 경향들과 견결히 鬪爭하는 감정, 당의 정책관철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는 감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적 사상감정은 人民的 사상감정과 階級的 사상감정의 최고 표현이며, 사회주의적 애

21) 같은 책, p.31.

22) 같은 책, p.33.

국주의의 ‘본질적 특성의 핵’을 이룬다고 한다.

이상의 특성 서술에서 우리는 먼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속에 포함된 虛僞를 찾아낼 수 있다. 그 인민적 성격의 기초가 된다는 根據의 허위성이다. 즉,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高唱되는 나라에 있어 사실은 ① 주권과 생산수단의 主人은 ‘인민’이 아니며, ② 그 제도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③ 인민들의 목적과 이해관계는 같지 않다. 주권과 생산수단의 主人은 인민도 아니요, 노동계급도 아니며, 당도 아니다. 그것은 당의 수령, 곧 金日成(과 金正日)이란 개인이다. 그 나라 제도는 인민, 노동계급, 당의 복리증진은 이차적인 목적으로 삼아 왔고, 金日成父子의 복리증진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 인민들의 목적과 이해관계는 각기 차이가 나지만 人民主權의 소유자(김일성)가 이를 같게 만들어 왔다.

다음으로, 우리는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는 ‘민족’이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배치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기 민족 속에 敵對階級을 상정하여 이의 타도를 기도하고 他민족 속에 同盟階級

을 상정하여 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상감정은 정상적인 개념의 民族 내지 民族國家 이념에 배치되고 그것의 생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감정’은 정상적인 개념의 民族意識과 정면대립적인 의식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지닌 자연스런 故鄉意識, 祖國愛, 民族意識과 같은 공동체의식과는 무관하며, 도리어 全體主義 체제에 있어서 이 체제의 유지에 맞지 않는 이런 감정과 의식의 육성을 저지하고 사회 성원들의 생동하는 감정을 파괴하고 集團主義心理를 조성하기 위해 鑄造된 개념이다. 40여년 전에 김일성은 “당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에 무한히 충실하는 것은 인민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가장 높은 사상 감정으로 된다.”고 했다. 곧, ‘社會主義的 愛國主義’가 된다는 말이다. 이 명제의 述部를 그가 요즈음 하고 있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다. “당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에 무한히 충실하는 것은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숭고한 사상 감정’으로 된다.” 곧, ‘民族主義’가 된다는 말이다.

김일성은 1989년 - 이 해는 '인민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競爭을 벌이기 시작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요, 역사로부터 이 경쟁의 敗北者로 판정을 받는 해이기도 하다. - 을 넘기고 나서 자신이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民族主義者'요, 국제주의자라고 공언하였다. 우리는 혹시 그가 진짜 民族主義를 추구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고 있는 것인가,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접근해 보았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그의 민족주의는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존중하는 民族主義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그는 '민족주의'라는 언어까지 각색하여 政治的으로 이용하고 있다.

4. 北韓政權이 民族的 動機를 強調하는 背景

김일성이 1990년대 들어 '民族主義'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은 1950년대 초반 이래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本質的으로 차이가 없는 것임이 위에서

김일성은 1989년 - 이 해는 '인민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競爭을 벌이기 시작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요, 역사로부터 이 경쟁의 敗北者로 판정을 받는 해이기도 하다. - 을 넘기고 나서 자신이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民族主義者'요, 국제주의자라고 공언하였다. 우리는 혹시 그가 진짜 民族主義를 추구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고 있는 것인가,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접근해 보았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그의 민족주의는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존중하는 民族主義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그는 '민족주의'라는 언어까지 각색하여 政治的으로 이용하고 있다.

4. 北韓政權이 民族的 動機를 強調하는 背景

김일성이 1990년대 들어 '民族主義'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은 1950년대 초반 이래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本質的으로 차이가 없는 것임이 위에서

살펴졌다. 혹시 그가 과거부터 ‘主體’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고 해서 ‘民族主體性’과 같은 것이 연상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과거를 근거로 해서 말한다면, 김일성이란 사람은 ‘民族’이념도 ‘民族主義’도 말할 자격이 없는 歷程을 지닌 것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그는 日帝 치하의 만주에서 수많은 韓人 민족주의자들을 살해하였고, 1945년 일제가 물러간 북한에서 曹晩植을 위시한 민족주의자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였다. 무엇보다 그가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무력으로 공격함으로써 기도한 ‘南朝鮮解放戰爭’은 글자 그대로 대규모적이고 전면적인 民族殺傷이었다. 1955년 말 그는 패전 후의 북한에서 다시 다소라도 민족주의적 열정을 지닌 인물이면 左右派를 막론하고 제거시켜 나갔다. 그 숙청사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主體’라는 낱말이었다. 1955년 12월 28일의 ‘黨思想事業에서 主體’라는 것이 그것이다.²³⁾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34년 김일성은 「中共 동맹당」에 가입하여 韓人 동족을 숙청하는 이른바 「민생

23)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1955년 12월 28일.

단」잡이에 혈안이 되었었고, 日帝로부터 해방이 되자 소련의 앞잡이로서 北韓에 들어왔던 것이다.²⁴⁾ 中共 중앙의 「반일민족통일전선」 산하였지만 중공과는 독자적으로 1942년 7월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여 싸웠던 김두봉, 최창익, 한빈, 무정, 박호삼, 박일우 등과 이들의 선배격이라 할 김창만, 그리고 조선 땅 안에서 艱難辛苦의 革命鬪爭을 벌였던 박헌영 등 ‘주체’(당시 「남로당」의 간부였던 박갑동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북한에서 남로당원들은 ‘조선혁명의 주체는 국내인민’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함.)들이 모두 그의 손에 숙청을 당하게 되었다. ‘主體’란 다름이 아니었다. 김일성의 충성분자가 되어 反김일성 분자들을 肅清하는 것이 ‘주체’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숙청작업의 전개가 ‘朝鮮革命’이라 불리워졌다.

그후 主體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1963년 10월 5일 김일성 군사대학 제7기졸업식에

24) 김일성은 중공 遊擊隊의 殘黨이 소련의 연해주로 도망가서 조직한 동북항일연군 教導旅에 한동안 가담해 있다가, 해방이 되자 教導旅 대장이자 소련군 대좌였던 후보중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들어왔고, 소련 民政의 후원으로 조선공산당의 최고책임자로 등장하였다. 허동찬, 「김일성 주체사상의 올바른 이해」(서울: 원일정보, 1989). p. 45 참조.

서의 연설), “국방에서 자위”(1965년)라는 슬로건으로 발전되었고, 1965년 2월 23일 고등교육성 당 총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에서 마침내 독자적인 ‘思想’으로서의 등단을 보게 된 것이었다. 그 때는 이미 그를 偶像化하는 작업이 궤도에 올랐고, 그의 家系 중심의 역사날조 작업도 시작되었을 무렵이었다.

‘주체’는 이처럼 政敵 또는 反對者 숙청을 위한 언어적 도구로 출발했던 것이나, 對外的으로는 중국, 소련 등의 외교적 압력을 피해 나가는 데도 유용하였다. 그러나 독자적인 思想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그것은 그 사이 권력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적 言語가 되어 온 것이다.

‘民族’동기의 강조도 이런 역사적 背景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55년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처음으로 ‘주체’란 어휘를 사용하면서 ‘민족해방투쟁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그 이후 북한에서는 과거의 민족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부각된 「조선전사」 등 많은 책이 출간되었다. ‘主體思想’ 자체를 위시하여, 조국광복회, 민족단결 전통 등이 捏造되어 김일성 통치의 역사적 正統性 확보를 위해 이

바지해 왔다. 그 사이 ‘민족제일주의’와 같은 鑄造된 어휘가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유럽 사태, 소련의 붕괴로 인해 조성된 1990년대의 상황은 대남전략면에서나 대내정책차원에서 民族的 動機의 새로운 강조를 요구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장한 것이 ‘民族主義’라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크게 두 차원에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對南戰略的 차원에서는 남한의 反民族性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남한내 저항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한 言語療法의 단위를 높이기 위함이고, 對內政策的 차원에 있어서는 자유의 微風이 유입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체제(족벌독점체제)에 대해 느끼기 시작하는 不滿과 反感을 완화시키는 心理療法의 단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主體의 民族主義論’을 펴게 된 직접적인 의도는 19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민족의 自主性’, ‘민족의 단결된 鬪爭’을 선동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⁵⁾

25) 内外通信 週刊版 제807호(1992. 8.6.)의 焦点解説 “북한식 민족주의노선의 反統一성과 汎民族大會”에서 이런 분석이 가해지고 있다.

5. 北韓政權의 民族的 動機의 強調가 南韓에서 얻는 效果

가. 言語戰術的 效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 결을 도모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중요한 원칙”²⁶⁾ 이라는 金日成의 언어를 그대로 복창하고, 이 언어들의 概念과 그로 구성되는 論理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民衆運動家’들은 물론이요 ‘進步的’인 지식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민족은 곧 민중’이라고 주장한다. 김일성의 ‘민족’ 개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틀리지 않는 語法이다. 이것이 모두 김일성의 사상(주체사상)을 학습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사고와 논리가 金日成그룹의 그것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26)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211.

나. 政治教育的 效果

우리 사회 안에 ‘主體의 民族’ 논리를 추종하는 세력이 양성되고 있다. 이들을 북한정권은 “자주 민주 통일 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진보적인 지식인 세력”이라 칭하고, “제3세대 학자군”으로 묶고 있다. (「노동신문」 1992년 5월 13일자 논설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남조선 지식인들의 투쟁”은 하나의 참고가 됨.)

다. 直接的인 政治的 效果

김일성의 추종자가 늘고 있다. 統一戰線組織의 폭이 상당히 넓혀졌다. 「汎民族聯合」은 상층조직일 뿐이다. 김일성의 ‘似而非’ 민족주의적 표어들은 남한정권이 反統一勢力으로 보이게 하고 그에 대한 공격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이런 迷惑을 염려하여 깨우치려는 노력들은 줄어들고 있다.

北韓政權의 對南戰略에서
나타나는 民族的 動機

1993年 2月 17日 印刷

1993年 2月 22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踰2洞 山73-13

電話：901-7123~4

印刷處：進明印刷公社